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사대문 · 청계천로 전체 총 41개 도로 대상

50km/h(간선) · 30km/h(이면) 일괄 적용

보행자 안전 강화 위해 대도시 도심 첫 사례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도 간선도로에서는 50km/h,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이하로 달려야한다.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 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시는 대도시 도심지역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운전자 시인성 향상, 사대문안 안전속도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의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망자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보행자 사고인 '차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50% 중반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안전속도 5030 확대와 더불어 무단횡단금지시설 확충 등 시설 측면에서도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초미세먼지 연간 12t 줄였다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하루에 34kg 감소

서울시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서울시 공공물류센터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연간 12t에 달하는 초미세먼지(PM-2.5)배출량을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에 고시한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역의 가장 큰 공공물류센터인 가락·강서시장 출입차량으로 등록돼 있고, 수도권 지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물류센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총 1895대에 대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하루에 34kg 감소, 연간 12t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추가 설치되고 경기, 인천에도 CCTV가 설치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이 가오하되므로 전국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1군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폐차 지원 및 저공해 조치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 방문한 외국인, '패션 · K-POP 상품'에 관심↑

여전히 화장품 구매 비중 73.4% 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18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3분기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7얼부터 9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0월4일부터 11일까지는 총 38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반기 관광객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기존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울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로 서울을 찾은 이들은 화장품뿐만이 아닌 옷과 신발 등 패션상품을 구매하고, K-POP 스토어를 방문하며 한류 문화 전반을 체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POP 스타의 영향으로 한류스타 관련 상품의 구매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10.3%에서 14.4%로 증가했다. 패션상품인 의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2.1%에서 57.7%로 증가했고, 신발류 역시 22.7%에서 32.5%로 구입이 늘었다.

다만 여전히 화장품의 구매 비중이 73.4%로 가장 높지만,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와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체류일과 재방문율, 지출액, 만족도 등 서울관광지표 전반이 향상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5.21일에서 5.85일로 0.64일 증가했다.

다시 서울을 방문한 비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4.5%에서 47.9%로 3.4% 늘었다.

10월 한 달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1.1% 증가한 120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 37만 명, 동남아 33만 명, 일본 23만 명 순으로 방문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999만 명에 이른다. 관광객 증가추이로 미루어 볼 때 2018년 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장은 "재방문 개별여행객의 증가로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한류스타와 연관된 체험이나 패션상품 구입 등 특색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울이 갖고 있는 매력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파에 고통받는 위기가구 발굴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한파 위험에 처한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해 424개 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와 함께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쪽방촌·달동네·옥탑방·임대아파트·연탄사용 동네·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원룸텔·여관·찜질방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통·반장이 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한다.

또 1인 가구 방문거부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알콜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1인 가구인데도 찾동의 상담·지원을 계속 거부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는 일을 예방하고자 경찰관을 포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해 긴급 보호조치 방안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업해 운영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도 긴급보호조치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

뉴시스

경기도, 전국 최초 '군부대 급식'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군부대 급식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군 장병들에게 신선·안전한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고 접경지역 농가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포천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군부대 급식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시범사업으로 포천지역 군부대 급식부터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체계로 전환한 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에 포천지역 군부대에 공급하는 지역농산물 비율을 70%까지 올리고 참여 농민 1700여 명을 육성해 지역농산물 군 급식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포천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수량은 ▲포천지역 일반농산물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접경지역 일반농산물 등의 순으로 보충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포천지역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지역 농산물의 군부대 급식 공급 체계가 확대되면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군 장병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지역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군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군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군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